

Contents



- 01 • COVER
- 02 •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03 • 2023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 04 • 2023 제15회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 05 • 부산건축도시사진전
• 부산예술제_젊은건축가展
- 06 • 2023 갈매랑 축제와 함께한
부산건축가회 젊은 건축가 작품 전시
• 부산국제건축제 next architects 4
• 2023년 신입회원 간담회
- 07 • 회원작품 탐방
- 08 • 부산건축가회 특강
• 제17회 부산건축상
- 09 • 국내건축탐방 _ 춘계
- 10 • 국내건축탐방 _ 추계
- 11 • 해외건축탐방 _ 스페인
- 12 • 인사말 / 총회 알림 / 협회 소개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부산국제건축제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가 주관하는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2023년 12월 13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은 부산의 많은 건축 관계자들이 참여해 ‘부산건축도시전시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부산건축도시전시관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과 도시, 그리고 관련 산업들은 단순히 기술적 분야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해당 도시와 국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많은 도시들에 건축도시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시 또한 2025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역사나 규모에 비해 건축도시 문화를 표현할 시설이 없어 부산의 건축인들은 오래 전부터 건축도시 전시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지 건축인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필요한 절차, 행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건축가회는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부산의 건축 단체 및 유관 기관들의 협조 하에 2023년 12월 13일 부산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포럼은 차윤석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부산건축도시전시관의 필요성과 도시건축문화”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주식회사 메이커 전평재 대표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그리고 서울도시건축관을 설계한 터미널7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의 조경찬 건축사와 세종시 국립도시건축 박물관 및 설계를 맡은 UKST 건축사사무소의 김유경 건축사의 발표 후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부산건축가회 이봉두 회장을 비롯하여,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최진태 부산건축사회 회장, 이상진 부산울산경남건축학회 회장, 이성호 부산국제건축제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전문가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각 전문가들은 “부산건축도시전시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향후의 과정과 필요한 제도의 수립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하였다.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활동사진, 포스터

2023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장소성의 재고_팬데믹 이후 회합과 이벤트가 창발하는 새로운 장소성의 재정립'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가 9월 22일 3차 심사를 끝으로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주제는 팬데믹 이후, 새롭게 재개되는 회합과 이벤트들의 상황과 글로벌한 환경과 로컬의 상황이 충돌하는 시기와 공간에서 건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이때 지역적 장소성의 개념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지적 표현의 축제가 되었다.

3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공모전인 만큼, 이번 공모전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에서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특히, 494작품이라는 역대 최대 등록과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어 대한민국 학생공모전에서 부산국제건축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을 증명했다.

총 368개의 작품이 제출된 이번 공모전은 3회에 걸쳐 심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심사가 재개되었다. 특히 벅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건축제에서 한-중-일 심사위원들의 공개심사가 진행되었고, 3차 심사대상자들의 열띤 경쟁과 관람객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최종 대상작은 Tianjin University의 Li Rui(중국)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전남대학교 이수(한국)와 부경대학교 박규민(한국), 그리고 Tianjin University의 Qu Qianhui(중국)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특선 5작품, 장려 12작품, 그리고 입선 126작품이 선정되었다. 특히 대상작은 주제에 대한 접근과 개념의 전개 등에서 탁월한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우대성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에 봉착해 숙제를 풀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며,



2023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활동사진,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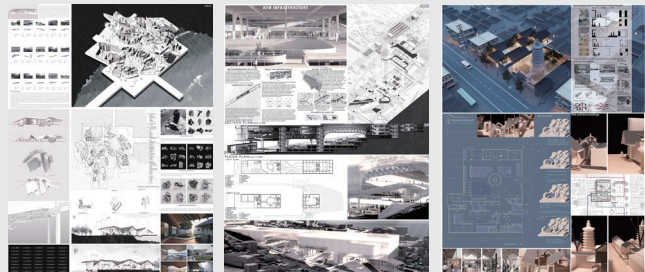
국가의 통제 아래 개인, 사회적 관계가 제약받았던 시기이다. 한-중-일이 딛고 있는 장소는 달라도 개인화, 고립화, 소통 부재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같다. 크고 멋진, 랜드마크적인 디자인만으로 본 주제에 응답할 수는 없다. 건축을 그려 단어를 쓴다고 장소의 쓰임, 즉 모임과 이벤트가 창발하는 곳이 되지 않는다. 건축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제를 해석하는 힘과 그걸 대하는 문제인식과 태도에 중심을 두었다"라고 평을 남겼다.

또한 제22회 부산국제건축대전부터 이어져 온 완공건축물부문에서는 허동윤(㈜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금섬도서관이 Best Award 1등상을, 원호성(서원대학교)의 오션테라, 유창욱(라인갤러토닉 건축사사무소)의 BAHUM COFFEE, 조서영(㈜서원건축사사무소)의 신대방 누리도서관, 조정훈(건축사사무소 아익)의 URBAN EYES 등 4개의 작품이 Best Award를 수상했다. 일반국제공모와 완공건축물부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건축가회 홈페이지(kiab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국제
공모부문
수상작
(대상)



일반국제
공모부문
수상작
(우수상)



완공
건축물
부문
수상작



2023 제15회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제15회 청소년 건축상상마당은 2023년 소비 패턴의 변화와 생활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심각해지는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쓰레기 재활용(recycling) 및 새활용(upcycling)을 통한 건축이라는 주제를 담아 'Saving Earth_생존 프로젝트'로 개최되었다. 지난해 '공공성 회복을 위한 운동장 풍경'(2022년)의 일상회복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해에도 참여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올 해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기존 정원을 웃도는 16개 고교의 31명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부산 여러 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지원한 멘토들과 부산건축가회의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운영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의식과 건축적 사고력, 건축을 문화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참여 학생들이 제시한 '재활용 및 새활용을 통한 무인도 생존을 위한 건축'은 일반적인 도시공간이 아닌 무인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바다에 떠내려 온 재료를 재활용하여 생존하는 건축이기에 재미있는 건축적 상상력으로 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참신한 스토리를 스케치하고 모형으로 표현하여 저마다 개성 있는 작품을 보내며 부산예술회관을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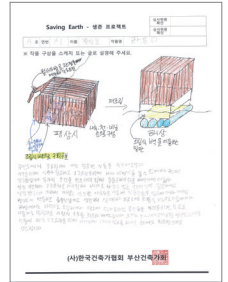
또한 2023년 부산건축상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한 최준석(건축사사무소 GEM)건축가는 특강을 통해 건축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친환경 건축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건축적 관심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9시간에 걸친 결과물 심사는 최준석, 정동원, 박은정 위원이 맡았으며 열띤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부산광역시장상)에는 한상보(동인고), 최우수상(부산광역시 교육감상)은 김수환(구덕고), 최민서(해운대여고), 우수상((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상(2명),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회장상(2명), 부산건축사회회장상(1명), 부산울산경남건축학회회장상(1명)은 이효주(부산여고), 손민경(만덕고), 김세은(주례여고), 신석현(한일고), 안세훈(동천고), 강건우(동성고) 학생이 선정되었다.

대상 한상보

[작품명 : 라퓨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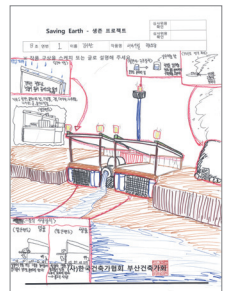
이동성에 초점을 둔 조립식 건축을 통해 생존과 구조를 동시에 해결하였고, 재활용품을 부력을 갖는 부표로 활용하는 등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여 기존 건축가 못지않은 발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 김수환

[작품명 : 서바이벌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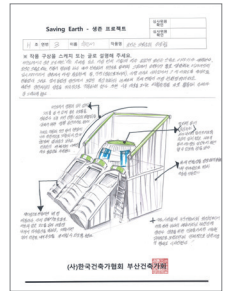
재활용품을 활용한 건축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식수와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 사냥장치를 고안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최우수상 최민서

[작품명 : 로빈슨 크루소의 가르침]

주어진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하여 모형을 만든 점이 돋보였으며,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높은 이해도와 세련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작품을 선보인 한상보 학생(대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수상하게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 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봉두 회장은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행사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청소년 건축상상마당이 부산의 건축계를 이끌어 갈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생각과 작업을 선보이는 행사가 되도록 협회 차원에서 발전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주 제 : 부산 : BUSAN

장 소 :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행사내용 : 심사 - 1차, 2차 심사 : 2023년 9월 12일 (부산예술회관 부산건축가회 사무국)
공모기간 - 2023년 7월 17일 ~ 9월 8일 (온라인 접수)
전기기간 - 2023년 10월 11일 ~ 10월 16일 (부산예술제 기간_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가 주관한 제61회 부산예술제 제24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이 10월 11일(수)부터 10월 16일(월)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렸다.

부산건축가회는 '부산:BUSAN'을 주제로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을 개최했다. 지금까지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이 추구해 온 '부산건축가회가 주최하는 건축도시사진전'의 모습을 벗어나, '부산의 건축도시를 촬영한 사진전'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개최됐다.

그 배경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진이 우리 사진전에 실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고, 그에 따른 조형이나 공간, 경관 등 건축적 요소 대신 우리 지역을 주인공으로 하는 주제를 떠올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부산건축도시 사진전은 24회째 개최되고 있다. 건축도시사진전은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나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두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공모전으로 부산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의 김철현 심사위원장은 "이번에 응모된 작품을 통해 부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었다. 부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웅장한 스펙트럼을 가진 도시다. 꼬불꼬불한 산복도로와 도시와 바로 인접한 다양한 해안도로, 그리고 동서남북의 축으로 형성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공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라는 것을 이번 응모작들이 충분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출처 : 인터넷조은뉴스(<http://www.egn.kr>)



1등 - 별 출은달 (장성필)



2등 - 남가진사간의 흔적 (최준혁)



2등 - 부산남항 (반미태)

부산예술제_젊은건축가展

주제 :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건축
때때로 우리는 무의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때가 있다.
건축가에게 건축이란? 공간의 의미를 찾기위한 사고들을
압축하고 응축시키는 일련의 예술적 사고와 과정들을
건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 :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행사기간 : 2023년 10월 11일 ~ 10월 16일

행사내용 : 젊은건축가展(10명)



2023 부산예술제의 일환으로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참여 건축가들은 각자의 건축작품 소개를 통해 건축의 예술적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였다.

2023 갈매랑 축제와 함께한 부산건축가회 젊은 건축가 작품 전시

- 🔍 **주 제** : 예술로의 여행展
 📍 **장 소** :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동백꽃방
 📅 **행사 기간** : 2023년 6월 12일 ~ 6월 17일
 📋 **행사 내용**

건축 전시 - 젊은 건축가 작품 전시(10명) / 관람객 300명 이상
 부대 행사 - 어린이 대상, 3D입체종이퍼즐건축모형 만들기
 - 모형 제작 후 사진 촬영 / 참가 200명 이상



부산시와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3 갈매랑 축제의 일환으로 부산건축가회는 '예술로의 여행展'을 부산시민공원 내 다솜관 동백꽃방에서 열었다. '예술로의 여행展'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가의 작품 전시와 3D입체 종이퍼즐건축모형 만들기로 행사를 구성했다.

'예술로의 여행展'은 지역 곳곳에 있는 10인의 젊은 건축가들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로, 오프닝에서는 전시에 참여한 젊은 건축가들의 발표와 작품에 대한 평을 듣는 시간이 마련돼 서로의 작품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전시를 통해 부산 시민들에게 건축의 예술성과 건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부모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세계 유수의 건축을 모델로 한 건축모형 만들기를 진행했다. 유난히 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형 만들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자기가 만든 모형을 들고 폴라로이드 사진에 남겼다. 자신이 완성한 모형과 사진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은 매우 즐겁고 행복해 보여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한 젊은건축가위원회는 '예술로의 여행展' 전시를 시작으로 부산국제건축제, 부산예술제에서도 작품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예술로서 건축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부산국제건축제 next architects 4

- 🔍 **주 제** : Busan Style - Busan Lifestyle and Architecture
 📍 **장 소** : 벡스코 제1전시장 2B홀
 📅 **기 간** : 2023년 9월 20일 ~ 9월 24일
 📋 **행사 내용** : 젊은 건축가 4인전



사진제공 : 부산국제건축제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으로 산과 바다를 둘러 싸인 천해의 자연환경 속에서 사는 부산시민의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 건축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줌으로써 건축을 통한 부산만의 정체성 발견과 이를 Busan Style로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부산건축가회는 부산국제건축제에 부산국제건축대전(일반국제공모부문, 완공건축물부문) 수상자, 부산건축상 신인건축가상 수상자, next architects 4 전시에 참여했다.

2023년 신입회원 간담회

상반기

- **일시** : 2023년 3월 6일
- **장소** : 부산예술회관
- **참여인원** : 약 10명

하반기

- **일시** : 2023년 11월 2일
- **장소** : 부산예술회관
- **참여인원** : 약 10명



신입회원 간담회를 통해 부산건축가회의 조직과 활동, 가치를 소개하고, 신입회원의 협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젊은 건축가 각각의 건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부산건축가회의 발전과 지역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발현에 의의를 두고 있다.

회원작품탐방



회원작품탐방 현장 단체사진

올해 부산건축가회 회원작품연구위원회는 처음으로 회원작품탐방을 진행하였다. 전반기에는 부산건축가회 회원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후반기에는 공공건축물을 살펴보도록 계획하였다. 3월에 시작한 회원작품탐방은 전반기에 4회, 후반기에 3회에 걸쳐 탐방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원작품탐방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 회원들 간의 교류에 있다. 큰 행사 외에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이번 회원작품탐방을 계기로 차츰차츰 한발씩 나아가려 했다. 첫 탐방부터 마지막 탐방에 이르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어서 2024년도 기대해보게 되었다.

회원작품탐방 운영방식에 있어 최대한 합리적이고 간결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간사(최새별, 변선화)와 역할을 분배하고, 부산건축가회 홈페이지에 탐방 홍보 및 탐방 후기를 아카이빙하였다. 단순한 모임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동명대 임성훈 교수가 1년 동안 비평에 참여해 주었다.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의 시간을 임팩트하게 이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후에 위원장과 간사가 변경이 되더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는 자세로 임했다.

이번 탐방을 통해 개선할 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작품탐방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건축물 탐방이 없었던 기간이 꽤 오래되어서 이에 대한 요구가 내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킨 것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에게는 탐방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두 번째 다른 위원회와의 연계가 부족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건축물부문 당선작이나 부산건축상(올해의건축가상, 신인건축가상) 수상작 등을 탐방한다든지, 젊은 건축가 워크숍과 연계하여 부산건축가회를 알릴 수 있는 탐방을 기획한다든지 등등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행사와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첫 기획이라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2024년에는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부산건축가회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듯하다.

회원작품 탐방 일정 및 장소

2023년 3월 ~ 12월



3월 21일 | 삼현도시종합건축사무소 사옥



4월 19일 | Good of days



5월 24일 | 서원건축사사무소 사옥



6월 28일 | BAHUM COFFEE



8월 23일 | 부산도서관



11월 1일 | 북항 마리아나 클럽하우스



12월 19일 | 금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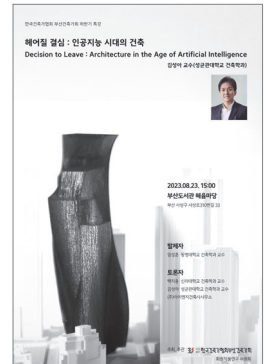
부산건축가회 특강

2023년 8월 23일 15시 부산도서관 해운마당에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성아 교수의 특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은 '헤어질 결심,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협회 회원, 회원사 직원, 대학생, 일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건축가회 회원작품인 부산도서관 탐방 후 이뤄졌다.

김성아 교수는 "Fly-by-wire, Digital Fabrication 등 건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AI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건축에도 AI건축가가 나올 것이며 이미 설계자동화 시스템이 보편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D 가상공간의 BIM 설계와 BIM 생태계를 잘 파악해 기존 건축과 헤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건축가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유심히 봐야한다. 건축가는 앞으로 협업을 잘하는 새로운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건축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캔버스이다"라며 4차산업 시대에 건축가들이 대처해야 할 자세와 미래의 건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출처 : 2023년 9월 1일 내외경제TV 기사 중 일부 발췌



부산건축가회 특강 포스터



제17회 부산건축상

부산건축가회는 제17회 부산건축상 수상자로 '올해의건축가상' 김용남 건축가(주)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신인건축가상' 최새별 건축가(건축사사무소 1458), '공로상' 허동윤 건축가(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안현조 부산건축가회 사무국장을 각각 선정했다.

'올해의건축가상'을 수상한 김용남 건축가는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에 지역 건축가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도심형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형도를 분석적, 비평적, 창조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금융센터 디온플레이스' 등으로 부산시 부산다운 건축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

'신인건축가상'의 최새별 건축가는 부산건축상 금상, 동래문화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음악의 완전음정(1도, 4도, 5도, 8도)에서 차용한

상호처럼 조화로운 건축을 지향하며 부산시 공공건축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로상'을 수상하는 허동윤 건축가는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동아대 의료원, UN평화기념관, 부산항 북항2단계 재개발 사업화 전략 아이디어 개념구상 국제공모 당선 등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과 CM 업무 등을 수행했다. 또, 건축과 예술 단체 임원을 역임하며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상지인문학아카데미> 개최, 인문 무크지 『아크』를 발행하는 등 건축과 예술, 인문을 잇는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현조 사무국장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2019~2020 제외) 부산건축가회가 개최한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술행정가로서 최선의 소임을 다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의건축가상



김용남

(주)삼현도시종합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신인건축가상



최새별

건축사사무소
1458 대표



공로상



허동윤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공로상



안현조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사무국장

국내건축탐방 _ 춘계



🕒 **일정** : 2023년 05월 20일(토요일)

👤 **참여인원** : 29명

📍 **장소** : 대구 미래농원 / 군위 사유원

부산건축가회는 5월 20일, 이봉두 회장을 필두로 조서영 전 회장, 한병우 원로회원 등 부산건축가회 회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과 하루 일정으로 건축탐방을 다녀왔다. 긴 터널을 지나오며 인간의 삶을 담은 건축가로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했기에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을 주제로, 대구 MRNW(미래농원)과 경북 군위 사유원 일대를 둘러봤다.

카페를 겸한 복합문화공원으로 유명한 MRNW(미래농원)은 SoA(대표 강예린·이치훈)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디자인 스튜디오 로사이(대표 박승진)에서 조경디자인을 맡았다. MRNW는 아버지가 가꾼 조경수 농원을 아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프로젝트였다.

2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타원과 사각형을 덜어내거나 병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선과 정원이 조성돼 있다. 중정으로 만들어진 타원에서는 하늘과 빛이 타원을 타고 내려오는데 마치 우주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중정에서 수평으로 연결된 소나무숲은 데크로 관람 동선을 만들었는데, 지면에서 올린 데크는 소나무숲과 주위의 화초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배려한 듯하다.

팔공산 자락에 걸친 사유원은 2017년 수목원으로 등록해 2021년 9월 개장했다.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태창철강을 이끌었던 사야 유재성이 평생 아꼈던 바위, 세월을 견딘 소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와 세계적인 건축가, 조경가, 예술가들의 원초적인 공간이 함께 자리'한 곳이다.

건축가로 승효상, 알바로 시자, 최옥, 박창렬이, 조경가로 정영선, 박승진, 카와기시 마츠노부가, 조경디자이너로 고기영이 참여했다. 사색의 공간이며 계곡과 능선을 따라 무념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목련길(1시간) 백일홍길(2시간) 모과길(3시간) 고송길(4시간) 등 코스가 조성돼 있다.

📍 사유원 내 답사지

- **치허문** : 승효상(주출입구)
- **소대** : 알바로 시자(전망대)
- **소요현** : 알바로 시자(전시, 공연, 전망공간)
- **현암** : 승효상(사색공간)
- **명정** : 승효상(공연, 명상공간)
- **첨단** : 승효상(전망대)
- **내심낙원** : 알바로 시자(김익진 선생의 카톨릭번역서 '내심낙원'에서 발췌, 채플)
- **유원** : 박창렬 / 정영선(정자)
- **사담(몽몽미방)** : 승효상(레스토랑)
- **오당/와사** : 승효상(명상공간)



국내건축탐방 _ 추계

🕒 일 정 : 2023년 11월 11일(토요일)

👤 참여인원 : 35명

📍 장 소 : 울산지역

울산시 건축상 수상작을 대상으로 탐방일정을 계획하고 프로젝트마다 건축가를 초청하여 계획의도를 직접 듣고 이해함으로써 더욱 더 의미있는 탐방이었다.



• **큰나무놀이터** : 울주군 상북면 명촌길천로 341

2022년 / 큰나무놀이터 (공공부문-우수상)

건축가 : (주)엠피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김원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됨으로써 이용객들을 즐겁게 만드는 건축물이다. 또한 다양한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한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받았다.



• **왕방요 카페** : 울주군 상동면 출강왕방길 124 1층

2023년 / 왕방요 (일반부문-최우수상)

건축가 : (주)온건축사사무소 정웅식

전시와 카페의 기능을 융합한 치수(모듈)에 의한 공간감이 우수하고, 노출콘크리트라는 재료의 물성을 잘 살렸을 뿐 아니라, 외부의 자연을 적극 활용해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울산도서관** :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 140

2019년 / 울산도서관 (대상)

건축가 :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용호

주변 자연과의 유기적인 배치와 따뜻한 공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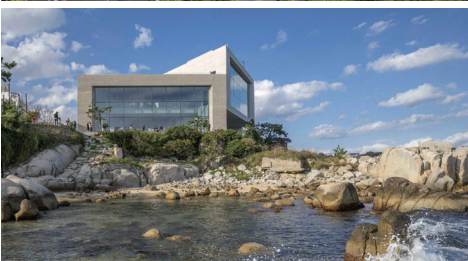


• **울산시립미술관** : 울산 중구 미술관길 72

2022년 / 울산시립미술관 (공공부문-최우수상)

건축가 : (주)가가건축사사무소 안용대

공공시설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위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성, 문화적 깊이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 **투트라이앵글(그릿비 서생점)**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해안길 4

2022년 / 투트라이앵글 (Two Triangles) (대상)

건축가 : (주)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이기철

투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을 모티브로 한 구상이 창의적이며, 외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전망과 채광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건축탐방 _ 스페인

🕒 **일 정** : 2023년 7월 05일(수요일) ~ 7월 12일(수요일)
 👤 **참여인원** : 33명
 📍 **장 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라나다, 세비아, 메리다, 빌바오

부산건축가회에서는 부산울산건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7월 5일(수) ~ 7월 12일(수)까지 6박 8일 / 8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라나다, 세비아, 빌바오 등) 건축문화 탐방 진행 하였다.



참가자는 이봉두 회장 및 허동윤 전회장, 조서영 전회장을 비롯한 부산 건축가회 회원과 이상진 회장을 비롯한 부산울산건축학회 회원 건축사회 강미숙 부회장 및 비회원을 포함하여 33명이 참가하였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지원으로 스페인 6개~7개의 도시를 탐방하며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 건축물과 1979년 제정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al Prize)을 수상한 건축가들의 건축물 및 지역 건축가들의 작품을 돌아보며 40도가 넘나 드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축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충만히 느끼며 돌아왔다.

📍 답사지

• **바르셀로나** : 사그리다 파밀리아(안토니오 가우디, 1882년~시공중) / 구엘공원(안토니오 가우디, 1900년~1914년 준공) / 까사바트요(안토니오 가우디, 1877년 준공) / 현대미술관(리처드마이어, 프리츠커상:1984) / 아그바 타워(장누벨, 프리츠커상:2008) / 바로셀로나 파빌리온(미스 반데로에(1886.3~1969.8), 1929년 준공) / 호안미로 미술관 (조셉 루이스 서트, 1975 준공) 등

• **발렌시아** : 예술과 과학도시 CAC(The City of Arts and Sciences) (칼라트라바, 1998~2005년 준공)

• **마드리드** : 프라도 미술관 증축(라파엘 모네오, 프리츠커상:1996) / 베로나203A빌딩(데이비드 치퍼필드, 프리츠커상:2023) / 산타모니카 교회(비센스 앤드 라모스, 2014년 준공) /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증축(장누벨, 프리츠커상:2008) /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리모델링)(라파엘 모네오, 프리츠커상:1996)

• **그라나다** : 알함브라 궁전(세계문화유산, 1238년~1358년 준공)

• **세비아** : 메트로폴 파라솔(울겐마이어 헤르만, 2011년 준공, 2003 미스 반데로에상, 2005지속가능한 건설 유럽동상 수상) / 세비아 대성당

• **까세레스** : 까세레스 구시가지(세계문화유산, 14세기~16세기 준공)

• **빌바오** : 구겐하임미술관 (프랭크게리, 프리츠커상:1989) 등

인사말

부산건축가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룡의 기운으로 새롭게 시작한 갑진년이 어느덧 2월, 새 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부산건축가회는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위축되었던 국, 내외 건축탐방·신입회원간담회 등은 회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고, 갈매랑축제·젊은 건축가전은 젊은 건축가들의 역량을 표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 새롭게 진행한 회원작품탐방은 부산건축가회의 가치를 더욱 살리는 행사였고 초청강연회와 더불어 회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은 '건축가치'를 지향하는 부산건축가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건축가회의 가장 큰 자랑인 '부산국제건축대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400명 이상의 높은 참여로 부산건축가회의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Saving earth'라는 주제로 진행된 청소년 건축상상마당은 부산의 16개고, 31명이 참가하여 미래주역들의 창의성을 복돋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회원 여러분이 열정으로 함께해 주셨고 부산건축가회의 도전과 변화의 노력들이 나뉘는 결실을 맺어, 2023년 회보로 풍성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2월 21일 개최되는 부산건축가회 정기총회에 꼭 함께하시어 올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봉 두

부산건축가회 회장 이 봉 두



총회 알림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제63차 정기총회

📍 일 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후 4시

📍 장 소 : 원덤 그랜드 부산 3층 MARE

📋 식 순

제1부 제63차 정기총회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출
2023 (사)건축문화연구센터 정기총회

제2부 제39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건축물부문 수상자 시상식
공로상 및 표창장 시상식
제17회 부산건축상 시상식



(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27)

협회 소개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T. 051-241-4011

E. kiabb@hanmail.net

A.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304호



부산건축가회 NAVER CAFE 가입 안내

<http://cafe.naver.com/kiabusan>

카페에 가입하시면 협회 공지, 행사 안내, 뉴스, 아카이빙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 원 사



SAMMI D&C

삼미디앤씨

DW 동원개발



대성문

(주)우성종합건설

롯데건설

HYOSUNG HEAVY INDUSTRIES

GS 건설

대우건설

Kakao (주)연양산업개발

회원후원사



hmA
주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한진아키텍트
(주)한진아키텍트사무소

TAO
(주)태오종합건축사사무소

ING GROUP
Architects & Engineers

BSA 부산건축

신도시엔지니어링

(주)건축사사무소 앙코르
ARCHITECT'S GROUP ANGOR

ILSHIN

RECHARD

김길학건축사무소

김길학건축사무소